

수협 탐방

<3> 진도군수협

위판 활성화...어민 행복시대 연다

활어위판장 신축...꽃게 등 844억 위판고

수산장학금·조업 지도 등 환원사업 다양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수협이 만들어갈 세상입니다.’

남도의 끝자락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 전통의 문화예술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장 진도에 자리한 진도군수협(조합장 김상호)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진도군수협은 1962년 진도군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한 이래 1972년 조도어업협동조합의 흡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른 ‘모범수협’으로 본점과 2개의 지점(광주 대인동, 조도)과 6개의 사업

소를 운영하며 1개 읍 6개면을 관할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조합원 수는 3098명, 출자금은 38억원에 달하고 1844억원의 총 사업실적을 거뒀다. 이는 2002년 141억원의 자본잠식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던 걸 감안하면 최근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은갖 풍파속에서도 오늘에 진도군수협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김상호 조합장



김상호 조합장

을 비롯한 62명의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다. 특히 부실채권 감축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실제로 진도군수협은 김상호 조합장 취임 이후 경영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며 2010년 6억원, 2011년과 2012년 각각 9억원, 2013년 11억원 등 총 35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그 결과 ‘수산정책자금 연체감축 특별캠페인 평가’에서 최우수 조합, 수협 중앙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수협보현 연도대상’의 우수 단체 등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 받았다.

또한 지난해 결산에서는 9억3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1997년 IMF 이후 17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4%의 출자배당과 이윤고배당을 실시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진도군수협의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서평항에 활어위판장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선어위판장을 지어 꽃게, 오징어 등 각종 활성어를 위판하고 있다. 또 2012년 제빙, 냉동, 냉장이 가능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완공해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냉동과 저장, 얼음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진도군수협은 공제사업, 구매사업, 이윤가공사업 등 모든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역점사업인 위판사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물길 478억원, 꽃게 140억원, 오징어 110억원 등 844억원의 위판고를 기록 중이며 실적 또한 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각종 환원사업과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조합원자녀에 대한 수산장학금 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불우어업인 김장 나눔 행사, 진도 꽃게 축제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김상호 조합장은 “진도군수협 경영 정상화의 주역인 조합원과 임직원들에게 항상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수산인들의 더 나은 미래 창출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며 “전 조합원과 임직원이 하나 되어 전국의 수협 가운데 진도군수협이 으뜸 조합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진도군수협은 꽃게 등 위판사업의 활성화로 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도 서평항 꽃게 위판 작업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칼바람’ 부는 금융권

저성장 기조·소비위축 등 영항 수익성 악화

증권·생명 희망퇴직 접수...은행권 확산 전망

최근 보험·증권업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전방위로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아직 별다른 구조조정 움직임이 없는 은행과 카드업계에도 소비 위축 등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감원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비바생명은 내달 11일까지 전체 인력(340여명)의 30% 선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회사 방침을 전달했다. 사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합병을 앞둔

농협생명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근 악화한 경영실적을 타개하겠다는 게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내달 12일 농협의 우리투자증권·우리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비바생명 명은 늦어도 내달 11일까지는 희망퇴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우리투자증권도 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400명가량을 감원했다. 우투증권은 근무 경력 20년 이상 부장에게 월급 24개월치와 생활안정 자금 등 최대 2억5000만원, 부부장과 차장급은 2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보험·증권사를 중심

으로 금융권 전방위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생명보험업계 이른바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저금리 환경의 고착화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최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업계 최상위권에 속한 삼성증권까지 희망퇴직과 지점 축소에 나섰고, 대신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현대증권 등도 지점을 통합하거나 폐쇄했다.

특히 증권업계는 다른 업권에 비해 수익성 악화가 심하게 올해 들어서는 임직원 수가 1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들어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으로도 구조조정 여파가 번지는 양상이다. 저성장 기조와 소비 위축,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은행과 카드사도 인력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확대

휴게음식점·어린이집·학교 등 인센티브도 늘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시기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FTA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 및 원산지표시 대응 품목 증가로 민간의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함께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고 우수업체 지정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규지정업체의 경우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배부하고 지역신문·생활정보지·현수막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체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지정된 곳 중 농관원 특사경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정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업소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입니다” 등으로 홍보문구를 사용토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다양하게 유도해 장기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 사료값 3.1% 인하

■배합사료 가격 조정 내역

구분	양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평균
할인액(원/kg)	16.5	15.5	14.6	13.1	13.2	13.5
할인율(%)	3.1	3.1	3.1	3.1	3.1	3.1

농협사료가 5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65일 동안 배합사료 가격을 전 축종에 걸쳐 평균 3.1%(338원/포) 인하한다.

농협사료는 28일 AI·PED 등 가축질병 발생과 축산강국과의 FTA 체결 등 어려운 축산환경을 감안해 배합사료가격을 인하시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에도 배합사료가격을 평균 2.2%(250원/포) 인하한 바 있다.

채형석 농협사료 대표는 “이윤 극대화 화가 최대 목표인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농협사료는 공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익을 제외하고는 가격인하 및 이용고객 등으로 양축농가에 환원하고 있다”며 “향후 가격 인하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죽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환타, 주스)

죽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 우리옷 맞춤형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형영 투레유트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